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본풀이

천왕불도(天皇佛道) 할마님, 지왕불도(地皇佛道), 인왕불도(人皇佛道), 서카(釋家)산은 서불법 여례(如來)신정 멩진국 할마님은 상갑자년(上甲子年) 갑자월(甲子月) 갑저일(甲子日) 갑저시(甲子時) 삼진 정월 초사을날, 어머니 배(腹) 안네서 배울¹⁾ 일을 다 배완, 훈착²⁾ 손엔 번성꽃(繁盛花), 훈착 손에 환생꽃(還生花)을 심영³⁾ 금세상에 탄생(誕生)허니, 스월(四月) 초파일(初八日)날은 할마님 남방사주(藍紡紗紬) 봉에바지, 백방사주(白紡絲紬) 적저고리 물멍지에⁴⁾ 단속곳 데홍단(大紅緞) 열두 북(幅) 호탄치메,⁵⁾ 코짬이 보선,⁶⁾ 멩지 줄장옷 열두 단추 메고 만산 쪽도리,⁷⁾ 호양메 감테에 안은 7득 책⁸⁾ 종이, 고운 붓,⁹⁾ 삼천 장에 베릿돌,¹⁰⁾ 오천 장에 먹을 글아,¹¹⁾ 스월 초파일날 노각성 조부연줄로¹²⁾ 옥항(玉皇)에 올랑 누룩으로 혜성 둘런 벨총당을 무연,¹³⁾ 할마님 문 안네¹⁴⁾ 지국허고,¹⁵⁾ 문 베껏디¹⁶⁾ 구덕삼싱¹⁷⁾ 걸레삼싱¹⁸⁾ 업게삼싱¹⁹⁾ 거느리난애, 헤튼국은 들튼국 주리(周圍) 팔만십이제국 마련을 혜영, 산천(山川)이 좋은 집은 아덜을 체급(取扱) 시겨 주저. 산천이 부족헌 집은 똬을 체급시겨 주저. 아방 몸에 힌 피 네리웁곡, 어멍 몸에 감은²⁰⁾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 똥경²¹⁾ 종이붓을²²⁾ 씨왕, 할마님, 열 둘이 똤민 할마님은 건지는 벗영 곤지에 걸고, 열두 북 호탄치메 멩지 줄장옷 벗영 간지에 걸어두고, 좋은 이불자리 걸어 두영, 북덕자리²³⁾ 깎아근²⁴⁾ 할마님, 은결 7똥²⁵⁾ 손으로, 금결 7똥 손으로 아기어멍 베를 늦똥²⁶⁾ 베는 7똥고,²⁷⁾ 7똥 베는 늦추와근 손으로 슬슬 씌영 팔데문을

- 1) 배울: 배울.
- 2) 훈착: 한쪽.
- 3) 심영: 잡고.
- 4) 물멍지에: 물명주에. 얇은 남빛 명주실로 짠 피륙.
- 5) 호탄치메: 훌치마.
- 6) 보선: 버선.
- 7) 쪽도리: 쪽두리.
- 8) 안은 7득 책: 책을 안은 모양.
- 9) 종이 고운 붓: 종이 속에 붓을 놓고 말아서 접은 모양.
- 10) 베릿돌: 벼루.
- 11) 글아: 갈아.
- 12) 노각성 조부연줄로: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로.
- 13) 무연: 마련하여.
- 14) 안네: 안에.
- 15) 지국허고: 좌정하고.
- 16) 베껏디: 바깥에.
- 17) 구덕삼싱: 아기를 낳히는 구덕을 지키는 신.
- 18) 걸레삼싱: 아기를 업는 멧빵의 수호신.
- 19) 업게삼싱: 업저지의 수호신.
- 20) 감은: 검은.
- 21) 똥경: 당겨서.
- 22) 종이붓을: 종이처럼 얇은 태(胎)를.
- 23) 북덕자리: 아이의 해산을 위해 보릿짚을 평평하게 깔아놓은 자리.
- 24) 깎아근: 깎아서.
- 25) 은결 7똥: 은결같은.
- 26) 늦똥: 느슨한 긴.

열령 청이실이 네리와근 동더레 머리헤영 나민 동부제(東富者), 서더레 머리헤영 나민 서계남(西艱難), 남더레 머리헤영 나민 남장수(南長壽), 북더레 머리헤영 나민 북단명(北短命)법 마련 헤영, 할마님, 네운²⁸⁾ 아기 초사를 초일레 열 상을 열일뤼, 스무 상을 스무일뤼, 열다섯²⁷⁾진 할마님이 키우고 열다섯이 됨, 할마님이 무너사는²⁹⁾ 법입네다.

할마님은 흐를³⁰⁾ 천 명, 흐를 만 명 네운 아기덜 돌보단 보난, 흐를날은 혼합천조별금상이 로구나. 흥진국이 데별상님은³¹⁾ 책갑(冊匣)지기, 준지(珍珠)지계, 선배후배, 삼만관성(三萬官屬), 육방하인(六方下人) 거느리영 인간에 호명(呼名)주레 네렴구나. 할마님은 덩기단 보난 브름썰에 브름썰에³²⁾ 흥진국데별상 호명주레 네렴덴 허난, 할마님은 지나가난 흥진국데별상을 만났구나.

백 보(百步) 베껏데 업데헤영,³³⁾

“공구허십니다~.”

“할마님은 누게우파?”

“난 인간에 생불(生佛)주는 할마님이우다. 우리 인간에 가민 단똥애기³⁴⁾ 후손(後孫) 하나 잇 이난³⁵⁾ 호명을 주지 마셴.”

헤영, 공구허십네덴 헤연 할마님은 가부렀구나. 흥진국이데별상님은,

‘요 늙은이 막상 헤여도, 핏네³⁶⁾ 덩기³⁷⁾ 나는 딜로 덩기는³⁸⁾ 늙은이가 나 7튼 어른한테 인 부력, 기부런 헤엿구나.’³⁹⁾

인간에 오란 보은낭계,⁴⁰⁾ 장적문세(帳籍文書), 호적문세(戶籍文書) 비쨍 단똥애기 얼굴에 얹 혀지고, 틀어지고 오목조목 흥파지엇구나.⁴¹⁾ 할마님은 그 손지(孫子) 안으난,

‘하늘이 높아도 땅엔 비가 내리는 법이고, 어떻허민⁴²⁾ 영⁴³⁾ 혈 수가 잇이리. 언젠간 흥번 나한티 굴복(屈伏)혈 때가 잇일테주.’

기다리단 보난, 흥진국이데별상 아덜 낭⁴⁴⁾ 칸⁴⁵⁾ 장계 감구나.⁴⁶⁾ 가마(駕馬) 연불줄 흥애기 소리에⁴⁷⁾ 툄랑 강,⁴⁸⁾ 아방 몸에 힌 피, 어멍 몸에 감은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 등견⁴⁹⁾

27) 브뚱고: 느슨하지 않은 짧은.

28) 네운: 낸 해산(解産) 시킨.

29) 무너사는: 물러서는.

30) 흐를: 하루.

31) 흥진국이 데별상님은: 호구별상님은. ‘호구별상’은 천연두 즉 마마를 주관하는 신령이다. 매우 심술 맞고 변덕도 심하여 무속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신임.

32) 브름썰에 브름썰에: ‘브름썰에 구름썰에’의 잘못된 뜻함.

33) 업데헤영: 엎드려서.

34) 단똥애기: 무남독녀(無男獨女).

35) 잇이난: 있으니.

36) 핏네: 피 냄새.

37) 덩기: 뒤에 나오는 ‘덩기는’이 먼저 나온 뜻함.

38) 덩기는: 다니는.

39) 인부력 기부런 헤엿구나: 어떠한 수작을 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말.

40) 보은낭계: 안개.

41) 흥파지엇구나: 흠파지엇구나.

42) 어떻허민: 어떻게 하면.

43) 영: 이렇게.

44) 낭: 낱아서.

45) 칸: 커서.

46) 장계 감구나: 장가를 가는구나.

47) 흥애기 소리에: 혼인식을 위하여 가마 행차를 할 때 하인이 길을 비키라고 내는 소리에.

48) 툄랑 강: 따라 가서.

49) 등견: 당겨서.

종이붓을 씨왕 생불을 주었구나. 흥진국데별상 메뉴리는 아긴 베연 열 둘이 뿔데다. 테독 7 치⁵⁰⁾ 베는 불어도 메뉴린⁵¹⁾ 애기 나지 못헤연 죽어간다. 흥진국데별상은,

‘메누리 죽는 꼴을 어떻 보리.’

방에 간 문을 중간⁵²⁾ 근심 걱정헤었구나. 서신국이마누라님은 옥항에 올릅데다. 천양보살님 하고 데별상님은 친헌 친구지간이난,

“나 오랏우다.⁵³⁾ 우리 메뉴리 애기 못 난 걱정이우다.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관(五行八卦)이나 지퍼봄서.”⁵⁴⁾

“할마님 노실(老失)이우다. 멩진국할마님 청헤여당, 메뉴리 살리곡, 애기 살립센.”

허난, 집이 오랏구나. 흥진국이 데별상한테 이 말을 곱으난,⁵⁵⁾

‘아차불사 나가 잘못헤었구나. 인간 호명 주레 갈 떼 멩진국할망이엔 헨게 나가 잘못헤어졌 구나.’

가젠 허난, 양반이 어떻 가리. 아니 가민 메뉴리가 죽을 거난, 어떻허리 진양도폭 입어간다. 청세띠를 띠었구나. 가막창신을 신언 할마님 사는 먼 문⁵⁶⁾ 베껏디 간 업데헤연,

“할마님, 과연 잘못헤엿습네다. 나 췌를 용서헤영 우리 집이 강 우리 메뉴리 살려줍센.”

은진무름⁵⁷⁾ 제비 꿀련, 두 속⁵⁸⁾ 합작헤영, 굽영⁵⁹⁾ 일억,⁶⁰⁾ 굽영 일억 헤어가난 할마님은 넘 어가명 옆눈질로 히뜩 보고 넘영오명 힌 눈을 히었구나.

‘여인이 몸이랑 어쩔 수가 엇다. 혼변 양반은 어떻허느리.’

모진 강풍(強風)을 불엇더니 청세띠가 클러지어도⁶¹⁾ 업데헌 디 업데헤었구나.

‘양반이 종부레기로구나.’

“흥진국이 데별상아 집이 가근⁶²⁾ 데 자 너비, 석 자 두 치, 느람지⁶³⁾ 솥섭으로⁶⁴⁾ 올레로⁶⁵⁾ 무똥⁶⁶⁾ 7지⁶⁶⁾ 드릴 노렌.”⁶⁷⁾

허난, 흥진국이 데별상이 집이 오란, 느람지 솥섭으로 데 자 너비 석 자 두 치 올레로 무똥 7지 7리를 끌아간다. 할마님은 들어가명 건지는 벗영 곤지에 걸고, 호탄치메 멩지 줄장옷은 벗영 간지에 걸어두고, 안네 간 보난 이불자리 걸어 똥 북덕자리 끌앗구나. 은결 7튼 손으로, 금결 7튼 손으로 아기어명 베를 쓸어간다. 늦똥 베는 부뜨와 간다. 부뜨 베는 늦추와 가는구나. 팔데문을 열령 청이실이 네루완 애긴 네왔더니 굴레 벳긴 물이⁶⁸⁾ 똤었구나. 할마님은 집

50) 테독고치: 큰 향아리같이

51) 메뉴린: 며누리는.

52) 중간: 잠가서.

53) 오랏우다: 왔습니다.

54) 지퍼봄서: 짚어보십시오.

55) 곱으난: 말을 하니.

56) 먼 문: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

57) 은진무름: 무름.

58) 두 속: ‘두 손’의 잘못인 듯함.

59) 굽영: 굽혔다가.

60) 일억: 일어났다.

61) 클러지어도: 풀어져도.

62) 가근: 가면.

63) 느람지: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 .

64) 솥섭으로: ‘느람지’를 깔아놓는 법이라고 함.

65) 올레로: 거릿길 쪽에서 집으로 가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66) 무똥7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까지.

67) 드릴 노렌: 다리를 놓으라고.

68) 굴레 벳긴 물이: 제어할 수 없는 말(馬)이. ‘굴레’는 입 안(口腔)을 나쁘게 이르는 말이니 굴레를 벗

이 오라 보난, 흥진국이 데별상님은 간 보난, 메누린 살려도 손진 굴레 벗긴 물이 뉘난, 할마님한테 다시 간,

“할마님아, 메누리는 살렸우다마는 어땡허난 굴레 벗긴 물이 뉘엿수다.”

“너도 너 손지 얼굴 보고프냐? 나도 나 손지 옛날 얼굴을 보고프덴.”

허난,

“할마님아, 나 기술(技術) 거 강 메꿀만이 메꾸와 보쿠덴.”⁶⁹⁾

헤연, 흥진국이 데별상님이 은준지(銀珍珠), 금준지(金珍珠) 석 섬 닷 말 칠세오리 갖영⁷⁰⁾ 간 아기 얼굴더레 뿌런 손으로 북북허게 쓸어가난, 오목조목 흥파진 디 다 메꾸와 고운 얼굴이 뉘엿구나. 할마님도 은⁷¹⁾세를 갖영 간 콧주덩이⁷²⁾ 조악허게 거시난⁷³⁾ 천하도령(天下道令)이 나옴데다. 흥진국데별상님이,

“할마님아, 나 기술이 좋덴 헤여도, 할마님 아니 더 험넹까? 할마님 공을 어땡 가प्네까?⁷⁴⁾ 쉬은데 자 수페머리 끊영 찻신을⁷⁵⁾ 삼양 용쟁길⁷⁶⁾ 감양 올린들 할마님 공을 다 가플 수가 잇십넹까?⁷⁷⁾ 만리장성을 둘령 두 손 합작헤영 무릅이⁷⁸⁾ 벗어지도록 허베헌덜상 할마님 공을 다 가플 수가 잇십넹까? 우리나라 일도도벽 하갑수령(-司令) 주서참봉, 일정싱은 이정싱, 삼정싱은 육판서도 할마님이 네운 애깁넹다~. 우리 인간은 할마님이 다 네운 즈순덜 아넹넹까? 할마님아 생불꽃(生佛花)을 줍서. 환생꽃(幻生花)을 줍서. 번성꽃(繁盛花)을 줍서.”

삼승할망본풀이>비념

아기 엇영⁷⁹⁾ 허는 즈순덜 아기 잇게⁸⁰⁾ 헤여 줍서. 아기 어땡 머리로 발 끝⁷⁷⁾지, 머리로 손 끝⁷⁷⁾지 오장육부 삼백 소혈 소테 혈도 굴라 줍서. 피도 굴라 줍서. 자궁에 염짱도 걸어 줍서. 움도리 방석에 염짱도 걸어그네, 인공수정(人工受精) 받는 애기덜 아기 엇영, 아덜 엇영 허는 집이 선대선조(先代先朝) 부모조상(父母祖上)덜 삼맹일 기일 제스⁸¹⁾ 혈 조순, 제스 맹질 때 분(墳)에 분장 잔 올릴 즈순 주경 험서. 아덜이민 더 좋고, 똥이민 더 좋수다. 엇인 사람이 피곡 석을 곱넹까. 할마님에서 어땡 베(腹) 안네 들어간 애기 곱게, 곱게 삼 계월(個月) 넘고, 스 계월 넘어가 가민 아기 어땡 베 안네서 크는 데로 아기 어땡 노래게⁸²⁾ 허지 맵서. 나쁜 음식에 탈나게 허지 맵서. 할마님아 아기 어땡 깊은 잠 못 자가민 베 안네 잇인 아기도 깊은 잠 못 자곡 험넹다.

곱게 네와주곡 할마님아 오늘 이기서⁸³⁾ 난산국에⁸⁴⁾ 본 푸난, 제주 백성덜 씨집 안 가는 즈

긴 말이라는 표현은 입에 채운 고삐가 없어서 통제할 수 없이 천방지축이 되었다는 뜻임.

69) 메꿀만이 메꾸와 보쿠덴: 메꿀 수 있는 만큼 메꿔 보겠다고.

70) 갖영: 가지어.

71) 은⁷¹⁾세를: 은가위를.

72) 콧주덩이: 콧잔등.

73) 거시난: 건드리니.

74) 가प्네까: 갇습니까.

75) 찻신을: 짚신을.

76) 용쟁길: 쟁기를.

77) 잇십넹까: 있습니까.

78) 무릅이: 무릎이.

79) 엇영: 없어서.

80) 잇게: 있게.

81) 제스: 제사(祭祀).

82) 노래게: 놀라게.

83) 이기서: 여기서.

84) 난산국에: 태어난 곳. 혹은 그 내력 본풀이.

순덜 씨집 가게 헤여 줍서. 장게 안 간 즈순덜 장게 가게 헤여 줍서.

씨집장게 가도 애기덜 아니 나켄⁸⁵⁾ 헤는 즈순덜랑, 할마님, 불 꺼진 날랑 좃앙 강, 생불꽃을 줍서. 환생꽃을 줍서.

오뉴월 장마에 물웨⁸⁶⁾ 크듯, 물 향아리에 금붕어 크듯이 곱게 잘 크게 헤여 줍서. 아기 곱게 커가건 어린이집도 잘 가고, 유치원도 잘 가고, 초등학교도 가건 앞이명에 너른 이견,⁸⁷⁾ 듯이명에 빠른 이견 글도 자원허게 험서. 활도 자원허게 험서. 누웁 자당 일어남 양작허게⁸⁸⁾ 허지 맵서. 애기덜 곱게 잘 크꼭 사춘기에 가건들랑 사춘기도 곱게 들어오게 시겨줍센, 영 헤 영 오늘 할마님 난산국에 본을 풀엇습네다에-.

85) 나켄: 날겠다고.

86) 물웨: 물외.

87) 이견: 의견.

88) 양작허게: 소리내어 떼를 쓰는 모양.